

◆교회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총연합회 서울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장: 노정환 편집국장: 조순근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십자가의 은총에 잠기는 기도의 한 주간
3월 29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본당에서

교회는 99년도 고난주간을 맞아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은총에 잠김으로 영적 경건의 은혜를 힘입도록 돕기 위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지기로 하고, 그리고 금번 특별새벽기도회의 전체 순서는 김성관 위임목사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3월 29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행적을 따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 등을 깊이 묵상

하면서 침체된 자신의 모습을 각성하여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새벽기도회에 적극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4월 2일(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온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목상 가운데 하루를 지내기로 하였으며, 이날 저녁 금요집회 시에는 이변찬양대에서 준비한 '십자가상의 찬양' 찬양이 연주될 예정이다.

99년도 전반기 교구별 영성훈련

교구식구들의 하나됨과 진정한 헌신, 그리고 교회의 5대 목표와 교회의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해 실시하는 '99 전반기 교구별 영성훈련'이 3월 25일 2교구를 시작으로 시작된다. 교구위원회에서는 이 훈련을 통해 복음 안에서 이루어

지는 5대 목표라는 교회적 기도 제목이 각 교구와 구역, 각 가정까지 뿌리내려, 전 교회가 하나로 엮여져 나아가는 일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99 전반기 교구별 영성훈련 일정은 아래와 같다.

교구	날 짜	교구	날 짜	교구	날 짜
1교구	4월 23일	7교구	4월 13일	13교구	4월 16일
2교구	3월 25일	8교구	4월 15일	14교구	5월 6일
3교구	4월 9일	9교구	4월 20일	15교구	5월 11일
4교구	4월 6일	10교구	4월 22일	16교구	5월 13일
5교구	4월 8일	11교구	4월 29일	17교구	5월 18일
6교구	5월 25일	12교구	4월 27일	19교구	6월 중

구역장 영성훈련

3월 17일 수요일 2부예배 후 다음 주부터는 교구별로

지난 17일(수) 수요일 1, 2부예배 후에는 김성관 위임목사의 강의로 여성 및 남성구역장 영성훈련이 실시되었다. 김성관 목사는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온갖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허락된 생명으로 날마다 생동하는 삶을 사는 구역장들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구역장훈련이 각 교구별로 실시되며, 교구별 모임장소는 오픈포스트와 같다.

교구	장 소	교구	장 소
1	임마누엘홀	10	교육관 301호
2	교육관 201호	11	교육관 314호
3	교육관 414호	12	교육관 407호
4	교육관 109호	13	베다니홀
5	교육관 307호	14	아래홀
6	나사렛홀	15	갈릴리홀
7	영아부실	16	호산나홀
8	교육관 205호	17	할렐루야홀
9	교육관 212호		



▲ 지난 17일 진행된 구역장 영성훈련에서 김성관 위임목사의 강의를 듣는 구역장들.

'99 여름 단기선교 케냐, 수단, 몽골, 파키스탄으로 헌신된 자원자 기다리는 중

선교위원회는 99년도 7-8월 중에 실시될 여름 단기선교 국가별 실시계획을 당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하였는 바, 금번 여름 단기선교 사역지는 케냐, 수단, 몽골, 파키스탄 등 4개국이다. 이 중 몽골과 파키스탄에는 각 12명의 대원을 10월11일 간의 일정으로 파송할 예정이며, 케냐의 경우에는 20여명의 대원을 파송하여 15월16일에 걸쳐 코멘빈 선교사의 교육사역에 필요한 교육시설 1동 증축 및 현지인 전도사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수단사역은 5명의 일꾼을 파견하여 김영태 선교사의 건강회복에 필요한 2개월의 기간 동안 의료사역 및 도서관 정돈, 현지인 전도사역 등을 감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교위원회에서는 각 사역의 성격에 맞는 단기선교 자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특히, 케냐의 경우에는 사역의 성격상 의사, 간호사, 약사의 경우를 빼고는 남자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16명). 그리고 수단의 경우에는 2개월간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간호사 1명과 약사 1명, 그리고 도서관 정리 및 기타 사역에 필요한 남자청년 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교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선교의 소명이 뚜렷한 자 중, 선교단원인 졸업생과 재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할 예정인데, 각 지원자들에게는 소속 부처와 교구의 추천서 제출이 요구된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위원회(구내전화 356번)로 하면 된다.

장로·안수집사 선출 다음주 4부예배 후 권사 선출은 오는 저녁 당회에서

지난 주 광교동 대로 다음 주일(3월 28일) 4부예배 후에는 장로,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렸다. 성도들은 지난 주 주찬양회에서 개제된 후보자 명단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였다. 한편 오는 찬양예배 후 열리지는 당회에서는 각 교구별로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투표법을 통해 80명의 권사들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출되는 권사들은 확정되는 장로, 안수집사 명단과 함께 차주 발표될 예정이다. 당회에서는 특정 개인을 지지하는 등의 선거유혹이나 상호 비방 등 비정경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군전도회 23일, 군중목사후보생 수련회 27일, 연두대 진중세례식

군전도회는 3월 23일(목) 군중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15회 수련회를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다. 전군의 복음화와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를 기도 제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금번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후보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헌신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한편 27일(토)에 육군 제2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는 약 2천 5백명의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진중세례식이 거행된다. 본교회 목사, 장로, 찬양대 및 군전도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진행되는 금번 세례식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통해 그리스도 안의 진정한 세례침례를 거듭하는 훈련생들이 많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선교기도회 3월 25일(목) 저녁 7시

선교위원회는 3월 25일(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베다니홀에서 선교기도회를 가지기로 하였다(6시부터 만나홀에서 식사). 선교 헌금자와 선교위원회 집행위원, 외국인선교부 선교사와 및 선교연구원 수강생, 그리고 '98, '99 단기 선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번 기도회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강사는 이승수 목사(선교위원회 지도)이다.

이·변·연·고·집·시·다 용도대로 쓰여야

대개 문제는 소수 지체들의 실수와 생각없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주보나 헌금봉투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성도들은 주보나 헌금봉투를 대본의 용도에 맞도록 잘 사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헌금으로 만들어지는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보나 헌금봉투를 메모를 위해서, 혹은 집 회의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른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메모지나 실교료지, 그리고 휴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배려 또한 신령한 예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임을 기억하여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배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쓰는 자세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김 장 인 목사

인생의 무상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이사야 40:6-8)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평강한 것 같아도 무너지는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보기에겐 거꾸러져 고생하는 때가 있어도 사람 앞에서도 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가 선지자를 부르시어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성취성에 대하여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담하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6절)

1. 인생의 무상함을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1)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으니 무상합니다

“... 모든 육체는 풀이요 ... 이 백성은 썩로 풀이로라” (6, 7절)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풀과 같이 약합니다.

사람보기에겐 여자와 어린이는 약하고 남자와 젊은이는 튼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흙에서 난 풀입니다. 인간의 몸은 흙에서 자란 풀과 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입니다. 봄에는 풀이 파릇파릇 씩이 돋고, 예쁜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르게 잘 자라납니다. 호박 나뭇잎이 한참 벌어질 때에는 천하를 덮어버릴 것 같으나 얼마지러는 중에 별과 같고 거름이 들고 장마를 만나면서 어언간 자라는 요면일이 누렇게 됩니다. 나뭇잎이 누렇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바루하면 50을 넘으면서 있는 주름살이 잡히고 꽃이 가진 줄도 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끝이 납니다. 이리므로 인간의 몸은 아무리 튼튼하다고 뽐내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풀과 같이 약합니다.

(2)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으니 무상합니다

“...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6절)

풀과 같은 인간의 몸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것들이 잠시 나타납니다. 열결이 아름답든지, 재산을 많이 가져 좋아 보이든지, 당당한 권세를 가져 흥행해 보이는 것은 다 꽃 같은 것입니다. 꽃은 열을 붉은 것도 있고, 백일 붉은 것도 있으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것도 많습다. 그 덕에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명예와 권세와 아름다운 다 들의 꽃처럼 잠깐 화려한 듯 하다가 곧 썩어지는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꽃이 필 때에는 아름답지만 꽃이 시들 때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추한 것입니다. 그러나 꽃이 시들어갈 때에 거기에 열매를 맺으면 그래도 분품이 있습니다. 예쁘고 훌륭해 보이는 인간이 늙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칠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아름답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리는 인간의 명예, 권세, 재물은 떨어지는 꽃송이처럼 추할 뿐입니다.

(3) 여호와와 기운이 인생을 붙여 버리기 때문에 더욱 무상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7절)

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니까? 본문에서는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살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력을 휘두를 때는 약한 사람같이 숨드 크게 치지 못하고 밟힐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뽐낼 때에는 가난뱅이들은 그 옆에 설 자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강대하여져서 이웃 약소국가들을 정벌해 들어갈 때에는 금방 세계를 뒤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 버리면 꺾어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호령하며 예루살렘을 정벌해 들어갈 때에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룰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땅에 버렸습다.

사람의 몸은 풀이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대로 강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 법이 없고 약한 자라고 죽기만 하라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2.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성취성에 대하여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8절)

(1)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므로 영원히 성취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아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실현되면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으로 진리를 창조하신 말씀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넘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섭리하시는 지혜로

운 말씀이니 하나님이 천지를 섭리하시는 그 동안에는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심판하시키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야만 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섭니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풀이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사람은 그가 넘어질 때에 별 수 없이 함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는 법이 없이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어떠한 형편으로 영원히 서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교훈을 얻으며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는 누구라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자로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격이 깨달은 솔로몬의 교훈은 인류 6천년 역사에서 추종을 불허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다니엘과 같이 성공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부터 죄 외에 죄를 더 행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20살도 되지 않은 소년으로 포로가 되어 수련이나 또는 바벨론까지 끌려 갔습다. 누가 생각해도 다니엘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름도 알려지진 대나 하다가 죽는 날에 장래할 사람도 없는 종말을 맛을 즐코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바벨론 북국인도 국부총리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다니엘은 그 나라의 국부총리가 되었습니다. 지식면에서는 박사장이 되었습니다. 박사학위 하를 얻기도 힘든데 모든 박사를 중해서 정상의 두뇌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따라가는 자는 다니엘과 같이 순종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10여년 동안 이나 사를 왕을 피하여 역물하게 도망을 다녔는데 그가 당한 역물함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는 구국공신이며 사

왕의 둘째 사위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따라 다녔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를 부음을 받은 임금을 신하의 위치에서 죽일 수 없고 또 사위된 자신이 아버지에게 손을 댈 수가 없다며 위기를 모면할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렸습다. 이런 다윗은 30살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요셉과 같이 좋은 것을 공급받습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갖은 유혹으로 음란 죄를 범하자고 한 것을 단언 거절하였습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불의한 유혹을 거절한 절과 같은 때는 고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높이 드시는 날에 굶어 죽게 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먹이는 시온자가 되었습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약한 자를 돌보는 자는 모자라는 것을 모르고 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원히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도 영원히 섭니다. 세상에는 그를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돈 많고 세력 좋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도 넘어집니다. 하물며 우상을 의지하고 풀과 나무와 돌 앞에 엎드려 복을 받겠다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 없어질까? 사람의 눈 앞에서 없어지고 사람의 눈 앞에서 없어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꾸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 앞에도 서고 하나님 앞에도 이영하게 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평강한 것 같아도 무너지는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는 꿈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보기에겐 거꾸러져 고생하는 때가 있어도 사람 앞에서도 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김성목 목사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39-43)

“...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

죄의 십자가, 순결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날, 골고다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중간 십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고 양쪽 옆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죄 가운데 십자가를 졌으나, 마지막 사람은 다른 이들의 죄를 십자로 가지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 스스로 뿐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진실로 죄가 없으신 순결한 분이셨습니다. 두 죄의 죄인은 이웃과 세상에 범죄한 대가로 십자가를 졌지만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이웃과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너무나 고귀한 일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배후된 공물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깊고 깊은 공물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순각적 사랑을 하던 군중들 그리고 그들과 한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비웃던 두 강도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마 27:44). 이 두 강도 중 좀 더 흉악하다고 여겨지는 자는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이 강도 뿐 아니라 대제사장과 사제, 그리고 장로들과 지나가던 군중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뿜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무자비하고 무례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34절)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랄갑니까! 예수님은 무지 속에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끝내 변호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의 도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공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받아 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미움스런 적의적인 사랑을 베푸십시오. 공물히 여기는 마음은 양육되고 연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문제되고 차가워집니다. 예수님은 이후 해리될

수 없는 공물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도처럼 취급하여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도, 또한 순결하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열구리를 찌르고 추한 말로 조롱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두 강도

십자가 상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별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두 강도와 나누신 대화입니다. 성경은 두 강도의 이름과 나이 등 다른 배경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 두 강도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세상에 명백히 드러난 범죄 때문에 십자가

구원의 길, 미련한 결말들

이 강도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아멘!!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릇된 일을 하며 지냈고 지금은 그 죄로 인해 죽어 가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 마지막 숨을 내쉬고 쉬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매우 비범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이 기도는 진짜 기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십자가

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43절).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은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다른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죄인을 위해 행하신 거룩한 일

구원 얻은 그 강도는 비록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주’요, ‘주인’으로 고백하였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 이 강도의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죽는 평범한 사람으로만 보였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 상의 승리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 내신 극적인 역사, 단 한번에 모든 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십자가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십자가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다운 승리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나 수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는 거둬들, 부활, 영원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이는 우리가 그 분을 주인으로 모신 수 없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죽어야 하지만 십자가는 절대적인 사랑과 의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절대적인 용서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

구원 얻은 강도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주’요, ‘주인’으로 고백하였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형에 처해 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두 강도는 자신들이 범한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따라 지름 당하고 있는 십자가 형이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인 것을 긍정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난 강도

그런데 그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중지하지 않은 반면, 다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잊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그치지 않는 다른 강도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40-41절). 더 나아가 이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강도는 자기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무언가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십자가형의 당연함,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형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엄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든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후회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한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다고 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는지는 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편견이요 불신에 불과했습니다. 그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 가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오!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그저 미련한 결말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약속받은 낙원

예수님 양편에 있는 두 강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부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강도의 정죄하는 시로 말했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다가 영원한 죄인, 심판받은 죄인으로 남게 된 반면, 다른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예수

인도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중 태(전도사, 청년과 부지도)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숙연함과 결연한 각오를 안고

인도 시간 1월 29일 새벽 1시 30분, 우리는 뉴델리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한 형제의 개인 사정으로 대신 뜻밖에 참여하게 된 이번 단기선교, 그리고 이어진 2개월여 간의 참출연 준비와 훈련들. 이제 그것들을 뿌려야 할 바로 그 땅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니, 숙연함과 결연한 각오가 교차하면서 두 손은 굳게 쥐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새벽 풍경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이 땅에 가득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있다가 인도로 돌아간 아미트와 민부, 그리고 차권을 마련해 주신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바로 뉴델리에 있는 YWCA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숙면을 취했습니다. 한두교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신비스런 음악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는 한두교가 얼마나 이 민족의 삶의 필마타까지 대려와 있는지를 세삼느끼면서 곧바로 뉴델리에서 장장 6시간이나 걸리는 사역자 잔디길에 도착했습니다. 속소가 났 카톨릭 회관에 짐을 풀고 장로님의 말씀 통독과 기도회 인도 등을 따라 저희 팀원들은 인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1월 30일 토요일, 사역 첫날 저희는 주로 선교지 탐방을 실시하여 저희들의 거점인 대학을 정찰하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선교 정찰에 가장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고 대학의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1월 31일 주일에는 크라이스트교회의 힌디 예배와 영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현지 교회 목사님께서 이송학 목사님께 힌디 예배 설교를 부탁하여, 이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하고 이것을 인도 친구 불라가 힌디어로 통역했습니다. 저희는 ‘갈보리 산 위’(135장)를 영어와 우리말로 따로 찬양하고 축복송으로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를 감격했습니다.

2월 1일(월)에서 4일(목)까지는 새벽에 일어나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를 악물고 뛰어야 하는 맹훈련이었지만, 하나님

은혜의 시간에 부어 주시는 힘과 위로, 그리고 우리 작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운데 넘치는 섬김과 사랑이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이기게 했습니다. 아침과 밤마다 드려지는 기도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적 공급이 저희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희는 오전에는 편잡 총합하며, 남자와 과대학, 여자 단과대학에서 캠퍼스 전도를 하고, 오후 이후에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인도인들

대학의 현장에서는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지성인이라는 그들은 한번도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인도 최고의 지성인인 대학원생들도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 내용도 접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왜 미련한 저희를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미련한 죄로 오해받았을 사역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가심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바쁜 생활을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이곳, 인도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인도 중상류층 1년치 봉급 통장 쏘아야만 하는 엄청난 액수를 치르고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인도 땅에 전해지게 하려고 왔습니다. 한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기에 그 먼 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이 사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저희 준비는 부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율동으로 경배하자, 어린 심령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했고 그 율동과 찬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한두교원이거나 시크교(힌두교의 한 분파인) 부모님을 둔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게도 복음이 전해짐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어어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2월 4일(목), 마지막 저녁에는 그 동안 전도한 353명을 초청하여 현지 교회 목사님과 청년회에 이들의 영혼을 부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 관습상, 겉으로 초창을 수락하지만 막상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방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되자,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20-30명 정도 예상했던 데 96명이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현지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이 전하여쳐를 받아서 현지 교회에서 그 영혼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믿을 없는 저희를 미쁘다 하시고 들어 새우셔서 저희의 미련한 입술을 사용하시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이번 인도단기선교를 돌아볼 때, 저희들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대원들의 언어 혼란이 부족하였고 기간이 짧아 충분한 사역을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인들에

게 가장 적합한 전도지,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전도지,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도지가 배려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대학 사역에서는 인도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공부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그것들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상 인도인들이 관심있게 묻는 우리나라 사정을 그들보다 더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영혼들을 위한 영어 찬양과 힌디 찬양의 충분한 준비가 아쉬웠고 자녀들에게 큰 관심을 두는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한 전도의 시간이 충분해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어린 영혼들에게 적합한 성경공부 자료의 개발도 우리 교회 차원으로 이루어져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자 못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 반역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맺으면서, 총련의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역에 저희와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인도팀원들도 매일 셋째주 금요일 밤에 총련기도원에 모여서 인도에서 복음 전한 이들의 명단을 놓고 중보기도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추후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부디 이 귀한 단기선교 사역에 전 총련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동참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에서 온 편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팀원들에게,
all of the elders and all members

한국에 계신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도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심을 바랍니다. 아미트와 민부, 그리고 저희 저의 가족 모두는 인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매우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지냈던 날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매우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목사님과 팀원들과 함께 여기저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백명이 넘는 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또한 이것은 저의 삶에 있어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모두를 만나기 위해 바쁜 시기인데 여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얻은 후에는 여러분을 뵈기 원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을 함께 지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과 매우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편지와 사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항상 기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상을 기다리는 불라



◀ 인도 편집
대학에서 대학
생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대
원들.

조장 감당하기

이 지 영(대학부 3학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내가 좋은 조장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이유로도 들었다. 편찮은 출석률, 수련회 전일 참석, 화기에에만 GBS 분위기는 내가,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근거였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던 첫 만남과 GBS, 시조식을 큰 실수 없이 하며, 그런 생각을 굳혔는지도 모르겠다. 첫 만남과 GBS 때문에 열심히 었드리는 나를 보며, 나에게 있어서 조장이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어떤 자리보다도 나를 훈련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고민스런 과정 통해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지혜 더욱할 수 있기를

그런데 조장이 되기 전부터, 부족하지만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떠나가는 것은 그저 나의 좋지 않은 상황과 오비이들의 단순한입이? 아니면 나의 모자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가? 떠나는 아이들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제수를 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의지가 될 만한 풀무분로 옮기는 것, 학교가 갑작스레 지방으로 결정되고 주말마다 올라올 형편도 되지 않아서 당분간 나오지 못하는 것, 큰 임대, 이민, 동등, 이에 얽힌 데 맞춘 격으로 나도 집안 사정으로 GBS에 불참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단순히 '상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조원들이 그들의 이런 사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받아 주는 것은, 그들의 성경 때문인가, 아니면 조장에 대한 신의 부복인가? 이런 생각들로 머리를 아지려 했던 것은, 혼자만의 자책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대한 예민함인

가? 그것들을 옮겨 분별해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책이라든 내리 던지고, 예민함이라든 하나님의 그릇대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의 이러한 고민들을 들은 신배들은 처음 말는 조장이어서 괜한 걱정을 한다고들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나 나의 이런 예민함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에 단순한 자책으로 넘길 수 없고, 그렇기가 더욱 기도해서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 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이뤄야 할 그리스도인됨

박 군 호(대학부 6학년)

얼마 전 한양대에 갔다. 한 친구의 장남스런 전화로 사람들의 점심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시간에 나가보니, 교회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모여 있다. 순식간에 늘어난 10여명의 사람들과 한양대 근처를 걸었다가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다수에

다수 가운데서도 한 사람만 대하는 것 같은 관심과 사랑을 이뤄갈 수 있기를

힘쓸려 있다 보면, 스스로 피곤해짐을 느낄 때가 있다. 나 스스로 에 그렇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곳에 있는 진정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꺼여들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환대함

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환대함은 기본적으로 집중함을 필요로 한다. 그 영혼이 당한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그 사람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 집중해 줄 수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됨이라는 사실 빛을 발할 수 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 많은 이들이 아이로 의 딸을 살리려 가는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그 변절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혈투중을 없애려 했던 한 여인에게 집중하셨다. 그리고 그 군중에서 그 여인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집중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환대하시고 집중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델을 우리의 모임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개인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의 분위기만으로 이끌려져가는 모임이 있다면 이 모델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모임에서는 그 모임의 분위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개인과의 관계가 희생되기 쉽다.

나는 우리가 갖는 많은 모임들이 비인격적으로 세상의 정신이 반영된 모임일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 어떠한 일장일색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임들은 그 근본에서부터 거두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정신이 판단해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활동이라는 도표를 만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수 있는 분위기를 피해야 한다. 모든 자신을 만만하게, 그러나 나에게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자아를 대면했을 때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평안해진 자아를 남에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일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상처 많은 이 세상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상처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5. 월 기도회 (매월)

하지만 주일에 있는 교사 기도회의 경우 시간적인 제약에 쫓기기가 마련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2부예배가 마친 후 사랑방부실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는다. 이날은 특별히 간중도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여러 제목에 대한 기도회를 갖는다.

6. 학부모 초청기도회 (반기)

이 외에도 반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 기간 중 마지막날 부흥회에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 한 달에 한번 기도회를 갖는다. 소위 '기도의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학부모 초청기도회는 지난번의 경우 8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학생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7. 거저씨 모임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교사들의 자발적 기도 모임들도 있다. 그 중 거저씨 모임은 시간을 정적으로 자신의 기도는 물론 다른 지체들의 기도를 중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 모임이다. 이 모임은 격주로 모인 성경공부를 하고, 거저씨 기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 호송기를 사용하여 호송기에 기도 제목을 남기기를 사용하는 사람 모두 들어와서 듣고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거저씨 기도방 전용 호송번호는 015-8376-2299이며 동참을 원하는 거저씨 분의 문의는 김재철 선생님 (019-360-5020)을 통해서 하든 된다. (고등부 비철을 선생님)

기도의 원동력 바탕으로 형신된 7천명 양육 꿈꾸는 고등부



대대적인 기도회 구조조정 통해 학생, 교사 모두 기도의 은총 속으로

공식적인 학생 기도회는 아직 없다.

2. 교사 기도회 (매주)

교사 성경공부가 끝나는 오전 11시쯤 교사실에서는 교사들의 기도회가 시작된다. 고등부의 각종 행사와 밀접한 교사의 사명을 위한 기도를 비롯하여 교사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3. 교사 중보기도회 (매주)

전체 기도회가 끝나면 '일대일 아침에 기도'가 시작된다. 모든 교사는 아침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박하지만 중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언에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두게 된다. 그리고 전체 기도회 후 108명의 교사들이 이리저리 이동하여 원하는 사람과 동석 짝을 지어 간단한 교제를 나눈 후 기도 제목을 전달, 서로를 위해서 드

1. 학생 기도회 (매주)

주일 8시 30분경 호산나홀에서는 9시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학생 기도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그리고 9시30가 다 되어 가는 시각 140여명의 학생들이 속속 모여들어 자리를 채우고 한양신교부 학생들의 인도로 찬양이 시작된다. 20여분 가량이 지나 찬양이 무르익어 가면 조제민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 후 본격적인 기도회가 시작된다. 그 주의 중심된 기도 주제에 맞추어 서로를 위해 축복을 하거나 중보 기도를 하고 기도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고등학생들의 영을 통하여 나오는 간절한 목소리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리고 10시경 계속 기도할 학생들을 제하고

3년 단가선교 사역 준비하는 이회진 자매

젊은날의 십일조

명목상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전할 계획

충현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

젊은이는 아름답다. 새백이슬 같은 깨끗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으로 3년 단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 이회진 자매를 만나보았다. 이회진 자매는 모태신앙으로 충현교회의 전교일꾼이다. 가방 가득 기도편지를 채우고 오고가는 후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회진 자매의 짧은 인생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어떻게 결심했나요?

96년 선교한국에 참석했어요. 또 미국에서 열린 어머니 선교대회에도 참석하면서 막연하게 가졌던 선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저를 몰아가시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순종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사실 선교를 생각하면 조금 두렵고 떨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셨고 98년 선교한국에서 3년간 단가선교를 헌신했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요. 제 젊은날의 3년을 하나님께 순수하게 드리고 싶단구요. 처음 결단하고 나서 가족과 친구를 떠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 부모님은 이렇게...

이런 저의 결심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아무 말씀 안하셨어요. 저도 헌신은 했지만 제 자신이 잘 정리만 안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포기할 수 있을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께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란 자신이 죽어 가는 것이다. 한 번 하면 도중하차 없이 해야 하는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겠나?' 저는 할 수 있다고,하겠다고 대답했고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제 저의 부모님께서는 저의 가장 강력한 기도후원자가 되시지요. 3년간 제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영, 육간에 강건하며 영적 전투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격려를 위해 늘 기도하실 거예요. 충현교회 식구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저는 앞으로...

98년 11월부터 국내 선교훈련을 받아왔고, 이제 4월 에 출국해서 국의 훈련을 약 5, 6개월 받을 거예요. 올 9월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명목상 러시아 정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에수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도전을 하 있을 때 두려워말고 하나님 앞에 젊은날의 십일조를 했으면 해요. 선교는 후회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귀한 사역이에요. 훈련 기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취재/이수경 기자)



똑같은 두 시간

박 우 정(충동3부 교사)

며칠 전 내가 봉사하고 있는 충동3부에서 원교를 겸한 과별 탁구대회가 있었다. 20여명의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탁구도 치고 만들어 온 김밥도 먹으며 약 2시간 정도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속에서도 나를 안타깝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아이들과 달리 한 쪽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그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탁구도 칠 줄 모르고 친한 친구도 없고 해서...' 그러니 내 욕심 같아서는 이런 기회에 함께 어울려 탁구라도 좀 배웠으면 했는데 몹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 여겨진다.

똑같은 두 시간!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똑같은 시간이 20시간의
귀중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2분 정도밖에는 쓸 수 없는
하찮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를 의지하고 항상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며 내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삶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똑같은 두 시간!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똑같은 시간이 20시간의 귀중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2분 정도밖에 쓸 수 없는 하찮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짧은 모임이 나의 남은 시간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이 시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에서 온 편지

뜻밖의 편지, 뜻깊은 사랑

윤 여 훈(사별)

김성관 목사님께,

군에서 뜻깊은 소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누가 저를 생각해 주신다는 걸 느낄 때 행복과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에게 보내 주신 두 권의 책은 제 인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잘 보고 이 책의 말씀을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도 잘 보았습니다.

제가 충현교회 오기 전까지는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도 열심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척교회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귀한 선물과 함께 받은 편지에 감사
주님과 성도들의 사랑 느끼며 감격

너무 아픈 상처를 주더군요. 이것도 다 주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현교회로 옮긴 후부터는 거의 부모님의 강제적인 권유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친구도 못사귀고 대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니 거의 교회 마당만 밟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청년부나 대학부에 다니는 제 또래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청년부에 다니고 싶었지만 쉽게 용기가 생기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선 절 버리지 않으시더군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절 위해 신경 써 주시는 분이 계시니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제대하면 청년부에서 신앙 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저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하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건강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축복 속에서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탐방 / 지체들 소식

탐방 - 이마용전도회

사생다머리 람하명의복음



▲ 농어촌 전도 활동에 참여하여 전개한 이마용 전도 시역.

머리카락을 다듬어 주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머리를 내어 만지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본다. 이 여유 있고 평안한 시간에 이들 사이에는 어떤 말과 생각들이 오갈까? 만약 한쪽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한쪽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 시간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긴장된 시간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가며 소리를 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남의 머리카락을 다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을 뱉는 사람들이다. 이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마용전도회(회장 이정주 장로). 이들은 전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이마용 전도 활동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5일 설립총회를 열어 조직을 결정했다. 이들은 평소의 농어촌 전도활동에 이마용전이 파견되었을 때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는 것을 보고

그 필요성을 느껴오던 터이다.

회원은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요원 25명과 전문직능을 가진 10명 정도이다. 이 전도회는 순수봉사팀과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시로 자체내 재교육을 실시하여 봉사활동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활동 현황은 시립아동병원, 낙산 가정복지원, 순복음신학원, 밝은빛 양로원, 이봉미용선교원 등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복지관의 중증이 완료되면 복지사업과 연결하여 미용봉사실을 두어 교회 주변의 불신자들과 시설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할 계획이다.

이마용전도회에서는 회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남녀 성도들이다. 지원자들은 2주간 활동에 있는 이마용전도회관에서 수 3월(월, 화, 수) 2시간 반씩(10:00-12:30) 3개월간(교육비 4만 원) 교육을 받는다.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데는 이마용전도회

두 명 정도를 선발하여 연합전도회를 통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아 이들을 교육시키기를 권한다. 그래서 농어촌 전도는 물론 필요한 때 언제나 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몇몇 교구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요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각 교구는 전도활동의 일환으로 전도요원을 기르는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여 이마용전도회를 양성하기를 권한다.

이마용전도회의 강점은 지속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머리카락이 지속적으로 자라는 한 전도회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한 번 두 번 머리카락이 자랄 때마다 주기적으로 머리카락을 다듬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본다.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를 하기 위해 확보된 시간은 전도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전도회에서는 이런 시간에 전할 만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전도를 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자기들이 헌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의 저소득층이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쁨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쓰인다는 일에 언제나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봉사자들이 더욱 더 열심이어서 봉사하려고 애가 저절로 줄 수 있을 정도이다.

머리는 자주 자라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처 손질하지 못할 때가 많다. 기증장식위탁 머리를 누군가 주기적으로 손질해 준다면 행 행복할 일이다. 이렇게 다른 사랑을 행복하게 해 주는 아름다운 손길들은 영혼들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가슴을 적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리라. (글/전영희 기자)

지체들 소식

영아부

3월은 학생 심방의 달

3월을 심방의 달로 정하고 아기들의 기정을 찾아가고 있다. 사업과 직장을 뒤로 하고 선행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심방하고 있다. 심방방문을 꺼려하는 가정도 믿음으로 찾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예수님 아끼기를 해 서로 감사하며 헤어진다. 교사로서 이별 때 보람을 느낀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엄마와 아기가 신생님과 친해져 더욱 감사하다. (송혜경 통신원)

영아부

이젠 엄마와 떨어져 애매드려요

1, 2월 두 달 동안 계속 홍보만 하다가 드디어 오늘부터 영아와 떨어져서 애매를 드렸어요. 비록 같은 공간에서 떨어져 지는 것이지만 처음 해보는 일에도 우는 천주도 있었던 모든 것을 경험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더 잘해내려고 믿습시다. 이렇게 헤어져도 애매드려요 있는 힘을 주신 예수님, 우리를 씩씩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임미은 통신원)

유년부

오늘은 뭔가 특별한 행사가 -

오래 전부터 기획하고 기도해 준비해 온 '학부모 초청저녁회'가 4월 20일(월) 오후 12시부터 교사실(교육관 304 호실)에서 열렸다.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 교육'이라는 주제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실재적인 방법들과, 이에 대한 교회와 가정의 역할 또한 어린이 신앙 확립을 위한 교회와 가정의 사역 방향을 현실 초등학교 교사를 강사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평소 염려되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 하심단회하게 되는하며 대화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이다. (윤숙희 통신원)

중등2부

교사탐방

3월은 교사탐방은 '청소년 이성교제와 성리상담'에 대해 실시하였다. 강사 전영희 선생님은 심대들의 최대 관심사인 이성교제에 대해 교사들이 가져야 할 문제 의식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핵심적으로 강의를 해주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3월 21일(토) 오후 3시 교회에서 독신 교사들의 단합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기도회와 체육활동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 (심은희 통신원)

고등부

서울중앙교회에서 탐방

3월 첫째주인 집회시간에 외부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소개되었다. 그분들은 대지동대 위치한 '서울중앙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견학(7차) 오신 분들이었다. 전교회 목사님을 주축으로 한 서울중앙교회는 내년 중순에 성당으로 이전하는데 큰 교회들을 선경하여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배우고자 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하였다. 집회 후의 논의를 통하여 조율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좋고, 목사님의 설교가 쉽고 기본적이라는 감동과 더불어 주신 것 같았다. 또한 몇몇 주간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상담을 주는 것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덧붙여 주었다. 이견하여 새로운 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서울중앙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천국일꾼 양성에 크게 이바지 하길 기대해 본다. (이영희 통신원)

청년1부

4월 4-5일, 미혼을 위한 가결연세미나

청년1부는 새봄을 맞으며 새로운 활기가 가득하다. 3월 팀별 수련회를 통하여 단합된 마음이 GBS와 집회에서, 또

주일저녁 사역자 기도회에서 결집된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런 힘을 청년1부 전체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이기 위해 가결연세미나를 계획하여 준비하고 있다. 금요일 3회째인 가결연세미나는 미혼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가정, 결혼, 연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배우기 위한 세미나이다. 아주 세심한 집까지 준비하고 보다 실제적으로 참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회내에 미혼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세미나를 공개한다. 자세한 것은 청년1부 회원들에게 물으면 기꺼워 단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혜경 통신원)

청년2부

주일마다 부는 신바람

주일마다 청년2부가 신바람이 불고 있다. 연이은 결혼과 출산 소식들이 청년2부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한다. 사랑과 감정이 있기에 벌써부터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 같다. 청년2부 전체가 모두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이리다. 3월 28일 12시 30분 이런 신바람나는 청년2부로 총회의 30대들을 초청한다. 이들은 신실한 말씀이 있고(특강: 이승수 목사), 풍성한 먹거리(예찬식: 삼계탕)가 준비되어 있다. (백명자 통신원)

사랑부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몇 차례 생각하다 근저에서 찾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중환복직관 아이들의 명단을 들고 왔다. 각 과별로 학생 2명을 맡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었는지 하지도 말씀하셨다. 이런 결과 총회관계관 아이들이 지금까지 2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학생 아니어도 같이 나왔는데 너무 기뻐하였다. 이런 활짝이 떠오른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정말 문을 두드렸더니 하나

남게서 2명의 영혼을 보내 주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도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결코 어려운 것이 없고 쉽게 생각하면 쉽다는 것을 알았다.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조금만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애매하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정혜경 통신원)

1교구

지역연합 일꾼모임 가져

지역연합 일꾼모임을 3월 11일 만나 출석하셨다. 만찬을 나누며 찬송으로 마음을 열면서 지역장로와 남성구역장들의 특색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을 통해 순교와 헌신도 다 경험하였다. 또 지역별로 모든 교회와 교구를 위하여 전의 사랑과 의지를 모으며 순을 잡고 나아나기회를 위한 동참기도와 하나의 원을 그리며 두터운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뜨거운 열기가 넘쳐났으며 서로가 말씀으로 승리되기를 소원했다. (임동태 통신원)

9교구

창도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처럼

지난 주일 교구모임에서 공과공부 후에 부다아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었다. 찬송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가운데 찬송모임은 회원들 참 반갑고 좋은 분위기였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인해서 만났는데 직장관계로 가끔씩 교회에 나오다가 학습을 받고 지난 달 예배를 받기까지 한층욱 주일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로서 이제는 주님아전도의 회원으로 특송을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 창도 들어오는 3월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들의 마음 속으로 따듯한 사랑이 비쳐질 때 중심 격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유영희 통신원)

교회소식 / 목·장 칼럼

★알림

1. 구제헌헌 인내 / 28일(다움주일) I, II, III, IV, V부예배에서 드립니다. 기도
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1. 2월 28일(다움주일) / 23일(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2. 주일오찬기도회 / 22일(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찬기도회 / 23일(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4. 찬양위원회 월례회 / 오늘 16:00, 찬양위원회실
5. 제1교육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00, 신교관 301호
6. 제2교육위원회 월례회 / 24일(수) 1부 예배 후, 교육관 7, 3교육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00, 교육관 411호
7. 3월초전도부 각 전도소집 월례회 / 25일(목) 18:30, 노아식당
8. 선교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00, 선교위원회실
9. 신임인전도회의 목요기도회 / 18일(화) 새벽기도회 후, 신임인전도회실
10. 전사회의 제3회 월례회 / 24일(수) 1부 예배 후, 사랑부실

★남녀친도회

1. 바울 3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5호
2. 바울 4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 바울 5 / 오늘 15:00, 교육관 407호
4. 바울 7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5. 바울 9 / 27일(토) 18:00, 연복동 암산한마당(494-8879)
6. 바울 11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7. 바울 1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4호
8. 바울 13 / 오늘 교구모임 후, 배나니홀
9. 바울 16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10. 베드로 1 / 27일(토) 19:00, 스넬하우스(우영선 집사, 555-6466)
11. 베드로 2 / 23일(화) 19:00, 연나홀과 영아부실
12. 베드로 7 / 25일(목) 19:30, 방갈로
13. 베드로 10 / 오늘 15:00, 교구모임장소
14. 베드로 12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15. 베드로 14 / 오늘 교구모임 후, 연나홀
16. 요한 4 / 28일(다움주일) 15:00, 중동식 집사대
17. 요한 13 / 오늘 14:00, 갈릴릴
18. 요한 14 / 오늘 14:00, 방갈로 집사대(648-2516)
19. 한 나 3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5호
20. 한 나 4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21. 한 나 13 / 오늘 교구모임 후, 배나니홀
22. 한 나 17 / 오늘 교구모임 후, 야만홀
23. 예스터 2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24. 예스터 3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5호
25. 예스터 5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407호
26. 예스터 6 / 오늘 교구모임 후, 김민홀
27. 예스터 7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28. 예스터 8 / 오늘 교구모임 후, 사랑부실
29. 예스터 9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1호
30. 예스터 10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소에서
31. 예스터 11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32. 예스터 1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4호
33. 예스터 13 / 오늘 교구모임 후, 탁아부실
34. 예스터 15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
35. 예스터 16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36. 예스터 17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7. 루디아 2 / 22일(월) 11:00, 갈릴릴
38. 루디아 7 / 23일(화) 11:00, 루디아홀
39. 루디아 8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107호
40. 루디아 10 / 23일(화) 11:00, 김복선 집사대(3491-6860)
41. 루디아 1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0호
42. 루디아 13 / 오늘 교구모임 후, 배나니홀
43. 루디아 14 / 오늘 교구모임 후, 방갈로 116호
44. 루디아 16 / 오늘 교구모임 후, 연나홀
45. 디미리 2 / 23일(화) 10:30, 김강성 성도대
46. 디미리 6 / 23일(화) 11:00, 정영준 집사대
47. 디미리 7 / 23일(화) 10:30, 사랑부실
48. 디미리 9 / 23일(화) 11:00, 조영남 성도대
49. 디미리 15 / 23일(화) 10:30, 이명경 집사대(814-3946)

★결혼

1. 김철성 군(김관남 목사, 정기순 사모의 아들, 19교구)와 함희영 함(함영선 집사, 이순애 집사의 딸) / 23일(화) 12:00 갈릴릴
2. 김철성 군(김관남 목사, 정기순 사모의 아들)과 함희영 함(함영선 집사, 이순애 집사의 딸) / 25일(목) 13:30 갈릴릴 신혼여행대행(0397-573-5500)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02	김경자	1	바울	416	전여주	19	대학부	진상만(19)	430	김세훈	19	대학부		
403	이금자	1	한 나	417	전정주	19	대학부	서명호(12)	431	박민정	19	대학부		
404	안용옥	4	베드로	418	조미라	19	대학부	조미현	432	조미현	19	대학부		
405	안승희	9	베드로	419	정희원	5	마리아	433	박세훈	19	대학부			
406	조복수	14	한 나	420	박지희	19	대학부	434	김영아	1	청년1부		이국숙(1)	
407	김지영	19	청년1부	421	장정훈	19	대학부	유우정(5)	435	송정숙	3	루디아		
408	박인성	19	청년1부	422	이민수	19	대학부	436	한옥자	6	청년2부		황순만(6)	
409	전병길	19	청년1부	423	이윤경	19	대학부	437	이연범	6	베드로			
410	김혜숙	19	청년2부	424	김주정	14	대학부	438	이명숙	6	루디아			
411	김희재	16	청년1부	425	한재원	19	대학부	439	김지미	19	청년1부		김경애(17)	
412	이혜성	19	청년1부	426	황승연	19	대학부	440	김동연	16	청년2부			
413	엄성현	19	대학부	427	조성준	19	대학부	441	김영진	13	루디아			
414	김의연	19	대학부	428	이진아	19	대학부	442	이진영	8	청년1부		김성복(10)	
415	홍윤정	19	중동부	429	이정환	19	대학부							

※추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 칼럼

여성

김 필 수(목사, 12교구 지도)

저의 집에는 세 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입니다. 그리고 보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여자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다뤄야만 하는 여자와 대하는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심방하며, 그때마다 동행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여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 사흘이 때 친국에 가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서운해서 여성에 대해서 꼭 한번 속고해본 적이 있었을 뿐 남성 지배 중심의 인간 세계의 현실을 너무나 당당하게 여가 머 거기에 있어서 지내 왔습니다. 일종의 남성으로서 일관적으로 여성에 갖는 어떤 편견이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살면서 문득 살펴보니 저는 가정에서 온통 여자들과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리고 교회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라 목사도 일하는 평생 동안 여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돼야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독자들에게서 용서하시기 받고 말고 말씀드리지요). 제 어머니만큼感激하고 제 아내만큼 신실한 여자로 더불어서 저는 여자들이 대한 일종의 편견이 가장 생명을 통해서 많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강 속에서만이라고 여자들을 대할 때 저의 어머니를, 아내를, 딸을 생각하면서 대하고자 하는 자세가 조금씩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연구해보았습니다. 여성과 남성들은 둘 다 불완전한 존재요, 둘은 동등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동등하게 존중하고 아끼고 가지는 사랑이 가득히,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공동체적인 동반자로서 듣고, 기뻐하고 주고, 의논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모습을 하나니게서는 분명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추천 증보의 창

①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우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선출되도록 인도하소서.

③ 25일(수) 시작되는 99년도 전반교구영성훈련을 통해 교구식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되며 진정한 헌신과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④ 군공목사후보생수련회(23일)와 연무대 진경세례식(27일)을 통해 군부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싸이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⑥ 각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 우리 교회가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3월 28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바이올린 김유정

(합월루아오케스트라 악장)

〈찬양곡목〉

- 나의 영원한 신이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나 행한 것으로

◆ 3부예배

바이올린 김유정

(합월루아오케스트라 악장)

〈찬양곡목〉

- 나의 영원한 신이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나 행한 것으로

◆ 4부예배

루디아어성중창단

(찬양곡목)

- 내 진정 사모하는 마음
- 마음속에 가득한 의심을 주 예수께 나누어
- 나 주의 도움받고자

◆ 5부예배

소프라노 박현주

(합월루아오케스트라 악장)

〈찬양곡목〉

-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 우물가의 여인처럼
- 그는 나를 만났네
-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
- 기뻐하고 기뻐하신 주

원로목사

김창인

위임목사

김성관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전영준 김재현 이숙수 정갑선

정현민 조문순 조일식 김동하 차병준

박종호 김진현 서광진 이숙환

정영성 박노철 이준경

협동목사

윤영락 박형용 노봉민

선교사

이준교 안석원 김영태

간도사

박기인 염영민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여전도사

정연희 최현갑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민 최희배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을 한영준

박종호 김영숙 김복순 김연식

교정전도사

박양덕

교육전도사

한승일 김영기 송원식 김창중 조재민

허용구 김병수 이종태 김윤식 김필수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대환 이석현

원로선교사

유병성 김형원 이기성 김형철 고은민

허요섭 강기영